

[파생상품]

심상범
02-768-4125
sangbum.sim@dwsec.com

선물옵션 분석

중기 세력 관망 탓에 선물 거래량 감소 상태 지속



SUMMARY

- Check 1. 상황/전망: 중기 세력 관망 탓에 선물 거래량 감소 상태 지속
- Check 2. 변동성 점검: H.V는 수리적 반등 차례. 때문에 I.V도 하락 제동
- Check 3. 옵션 투자자별 동향: 외인, 2일 연속 D-OTM 풋 대량 신규매수
- Check 4. 선물옵션 통계

요약

기술적으로 지수는 등락-횡보가 이어질 것이다. 전일 5MA 지지는 긍정적이나 4일 연속된 2000p+ 피보나치 조정 50%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번 지수 상승 국면의 2대 특징은 5MA의 지지력이 높았으며, 각종 저항선은 예외 없이 깬 업으로만 돌파되었다는 점이다. 2000p를 넘어서려면 일단 미 증시가 급등해야 된다.

수급에서도 당분간 장 중 하락-막판 반등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후반 반등은 외인 바스켓의 알고리즘 매매 탓인데, 초반 순 매수가 충분하면 막판+종가 순 매수가 줄어들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전일처럼 막판+종가 순 매수가 늘어 지수가 급등할 수 있다. '데이-트레이더'라면 이러한 등가 법칙(?)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일 장 중에 지수 낙 폭이 제한된 것은 외인 순 매수 증가 보다는 증권+투신 비차익 순 매도의 감소 탓이다. 전자는 괴리차 저 평가 부족에 따른 비공식 차익 순 매도 둔화, 후자는 레버리지 ETF 환매 둔화 때문이다. 이것이 계속되려면 선물 외인 중기 세력의 전매가 계속 지연되면서 선물 고 평가 상태가 이어져야 한다.

선물 외인 중기 세력은 여전히 관망 중인데, 배경은 이미 소정의 수익을 확보한 데다, 무리한 전매로 비공식 매수 차익잔고 청산을 자극할 필요가 없으며, 아직까지 지수 방향을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이들이 신규매수를 잔뜩 쌓은 상태에서 팔짱(?)을 끼는 바람에 선물 거래량은 10만 계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 변동성은 그림자 효과(낮은 수익률의 표준편차 계산 범위 이탈) 탓에 향후 지수 절대 수익률이 0.14%를 하회하지 않으면 수리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내재변동성도 6개월 최저치에 도달한 데다, 역사적 변동성의 상대적 급락으로 양자의 거리가 경험적 한계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이다.

전일 옵션 외인은 풋 207.5p를 대량 신규매수했다. 이를 연속으로 OTM 풋 매수를 누적한 것이다. 한편, 콜 247.5p 역시 신규매도했지만 행사가격이 달랐기 때문에 합성선물 매도로 볼 수 없었다. 누적 포지션의 '+' 델타는 급감, '-' 벡가는 증가했다.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지수 하락/변동성 축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Check 1. 시황/전망: 중기 세력 관망 탓에 선물 거래량 감소 상태 지속

전일 K200지수는 갭 업(+0.47p) 이후 등락-하락했으나 후반 반등(+0.52p), 종가 급등해(+0.6p) 2일만에 양봉으로 마감했다. 기술적으로는 5MA가 지지선이었으며, 수급에서는 기관 현물 순 매도 약화와 막판+종가에 집중된 외인 비차익 순 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지수-비차익 추세 상관계수 +0.36).

기술적인 트랩과 수급의 불안정한 균형 상태 이어져 지수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횡보 지속할 듯

기술적으로 지수는 여전히 좁은 박스 내에서 등락-횡보할 전망이다. 전일 5MA의 지지는 긍정적이지만 4일간 지속된 마디지수 2000p+ 피보나치 조정대 50%의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월 22일 이후 지수 상승 국면의 2가지 특징은 ① 모든 저항선이 예외 없이 ‘갭 업’으로 돌파된 점과 ② 대부분 5MA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점이다. 같은 패턴이 이어진다면 이번 저항선 역시 새벽 미 증시가 급등해야만 돌파될 것이다[그림 1].

수급에서도 당분간 지수는 장 중에 하락했다가 막판에 반등하는 패턴이 반복될 전망이다. 외인 비차익 순 매수가 막판+종가에 집중되고 있는 배경은 ① 기본적으로 바스켓 수급이 다소 약해진 탓도 있지만 ② 장 초반의 유동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외인 개별 종목 공매도가 둔화된 데다, 기관 현물 순 매도 역시 후퇴했고, 선물 외인 중기 세력은 아직 전매에 나서지 않아 비공식 차익 순 매도에 의한 지수 하락 압력도 크지 않다. 수급 역시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외인 비차익의 등가 법칙? 초반 순 매수 줄면 막판+종가 순 매수 증가. 상대적 영향력 큰 편

전일 외인 비차익 순 매수는 +1,355억원으로 전일 대비 소폭 늘었다. 단, 후반에는 최저 -128억원 순 매도 우위였다가 막판과 종가에 각각 +501억원, +973억원이 집중되었다. 막판과 종가에 비차익 순 매수가 집중된 점은 최근에도 자주 관측된 현상이었지만 초반의 집중 순 매수가 없었던 점은 직전과 달랐다.

만일 전일 비차익 매수가 줄었다면 이는 바스켓 수요 감소를 뜻한다. 즉, 체결 수요 감소 탓에 ‘초반-막판-종가’로 3등분된 진입이 ‘막판-종가’의 2등분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일 비차익 매수는 9,319억원으로 전일 대비 +11.9%나 늘었다. 때문에 초반 집중 순 매수의 불발은 ‘유동성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초반에 유동성이 불충분해 시장 충격 비용이 상승하자 ‘알고리즘’이 일단 체결을 미루었다가 막판+종가에 불가피하게 체결을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일종의 조건 반사였던 셈이다. 이러한 패턴은 ‘데이-트레이딩(day-trading)’에 있어서 2가지 전술적인 함의(含意)을 가진다.

첫째, 외인 바스켓 수요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초반에 순 매수가 집중된다면 막판+종가 순 매수는 줄어들 것이며, 반대로 초반 순 매수가 적다면 막판+종가 순 매수가 늘어날 것이다. 둘째, 단위 순 매수가 지수에 미치는 충격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초반 순 매수 보다는 막판+종가 순 매수가 클 수 밖에 없다.

이번 지수 상승 국면의 기술적 특징은 5MA 지지와 갭 업에 의한 저항선 돌파

외인 비차익 순 매수는 전형적인 알고리즘 매매 패턴. 초반-막판-종가에만 집중

전일 초반 비차익 순 매수 불발은 유동성 부족으로 체결을 막판+종가로 미룬 탓

비차익 순 매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초반 순 매수 적으면 막판+종가 순 매수 늘어날 것

외인 개별 종목 순 매수는 공매도 둔화+숏 커버링, 기관 현물 순 매도 약화는 선물 고 평가 탓

외인 개별 종목이 2일 연속 순 매수였던 것은 공매도 둔화와 일부 숏-커버링이 섞인 탓이다. 3월초 사상 최대였던 대차잔고가 이후 꾸준히 감소한 것이 증거다(다만, 3월 만기 직후 대차잔고 급감은 외인보다 증권 주식 선물 LP의 헤지성 공매도 대량 청산). 지수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증권 비차익 순 매도 감소는 괴리차 저 평가 부족, 투신은 레버리지 ETF 환매 감속 때문

전일 기관 현물 순 매도 역시 -884억원으로 전일 대비 -72%나 급감했는데, 증권과 투신의 비차익 순 매도 감소가 컸다. 장 중에 괴리차 저 평가 빈도 부족으로 비공식 차익 순 매도가 둔화된 데다, 레버리지 ETF의 환매 역시 감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제외한 기관의 순수 이익 실현 매물은 원래부터 크지 않았다.

지수가 수급으로 저항선을 돌파하려면 ① 외인 현물 순 매수가 2배속되거나, ② 전일처럼 기관 현물 순 매도가 줄어야 한다. 전자(前者)를 위해서는 ECB 유동성 확대에 따라 개별 종목 순 매수가 가세해야 하는데 아직도 무소식이다. 후자는 괴리차 고 평가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는 선물 외인 중기 세력에게 달려있다.

선물 외인 중기 세력은 여유 있게(?) 관망 중. 단, 이 때문에 선물 거래량 급감하며 회전을 저하

전일 선물 외인은 이틀 만에 순 매수로 복귀했다. 초반에는 최저 -724계약 순 매도였으나 이후부터 순 매수로 돌아섰는데, 미결제 증감을 대조한 결과, '신규매도 회전-신규매수 회전-환매>전매'의 연결이었다. 장 중 빠른 회전과 비교적 적은 매매 편향 강도를 감안하면 역시 중기 세력 보다는 초 단기 세력이 유력했다.

중기 세력의 이유 있는 관망. 수익 확보+비공식 차익 순 매도 자극 회피+하락 가능성 희박

중기 세력은 여전히 매수 포지션을 잔뜩 누적한 상태에서 관망 중이다. 어차피 소정의 수익을 확보한 데다, 자신들이 전매하지 않는 이상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므로 급하고 무리하게 청산할 이유도 없다. 다만, 만기 결제된 부분이 진입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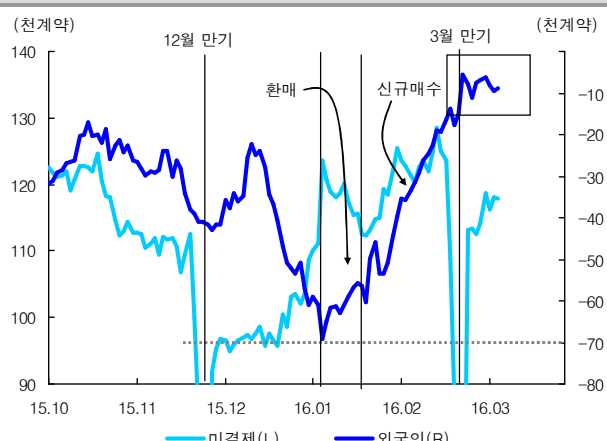
이들의 관망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선물의 유동성이다. 3월 14일부터 전일까지 6월물의 일 평균 거래량은 99,052계약에 불과했다. 이는 3월물의 일 평균 거래량 136,182계약에 비해 -27%나 줄어든 것이다. 미결제는 일 평균 115,798계약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회전율은 일 평균 85%로 하락했다.

그림 1. 1/22 이후 모든 저항선은 깬 업으로 돌파



주: 수평선은 지난 해 4월 고점을 중심으로 그린 피보나치 조정대
자료: KRX, KOSCO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선물 외인, 중기 세력은 관망세 지속



주: 미결제는 최근월물 기준. 외국인인 전체 순 매수에서 차익성 순 매수 차감한 것
자료: KRX, KOSCO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2일간 절대 수익률 일 평균은 0.35%. 그림자 효과로 이후 역사적 변동성은 반등 불가피

Check 2. 변동성 점검: H.V는 수리적 반등 차례. 때문에 I.V도 하락 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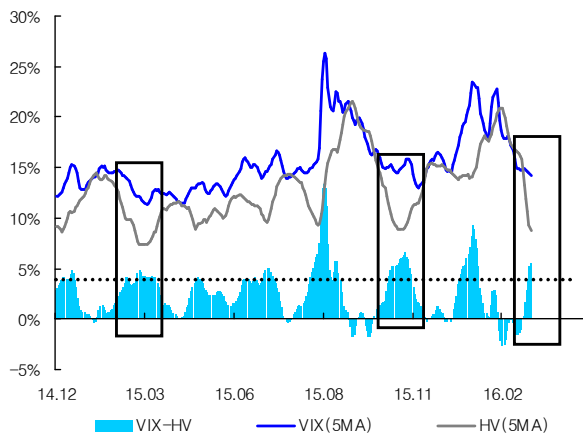
전일 변동성은 일제히 하락했다. VKOSPI는 12.68p(-0.83), 역사적 변동성(22일)은 7.77%(-0.67), EWMA는 7.21%(-0.49)였다. 원인은 전과 같았다. 내재변동성은 하락은 지수 상승에 따른 반동이었으며, 역사적 변동성 쪽은 그림자 효과의 소멸(2/18일, +1.20% 탈락) 탓이었다. 단, 이후 변동성 추가 하락은 제한될 전망이다. 일단 역사적 변동성이 반등할 것이다. 직전 22일의 절대 수익률은 ±0.35%였으며, 앞으로 7일간 표준편차 계산에서 이탈하는 절대 수익률은 ±0.14%다. 만일 향후 7일간 지수 등락율이 이를 하회하지 않는다면 표준편차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역사적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급락해 내재변동성과의 거리가 경험적 한계까지 벌어졌다. 과거 경험상 역사적 변동성이 반등하면 내재변동성의 하락에도 1차 제동이 걸렸다. 게다가 VKOSPI는 6개월 구간 최저치에 도달했다.

표 1. 변동성 동향 및 지수 변동 폭 환산

		Total	Call	Put
Im.Vol	change	11.3	10.4	12.6
	Max	-0.70	-0.20	-1.30
	Mean	20.3	32.5	17.3
	Min	14.0	13.7	14.4
	Min	11.3	10.1	08.2
His.Vol	change	07.8	5 day	05.1
	Max	-0.67	10 day	05.5
	Mean	20.7	15 day	08.9
	Min	14.6	20 day	08.1
	Min	07.8	25 day	08.7
	Min			
Vol. Cone		EST.Max	EST.Min	
	1st	8.2	251.48	240.66
	25th	12.3	254.24	238.04
	Median	15.3	256.27	236.16
	75th	17.5	257.76	234.79
	100th	22.6	261.35	231.56
T.T.M(day)	18	C.S	0.72394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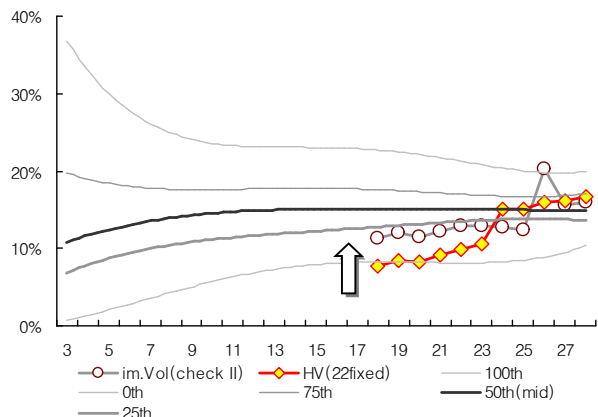
- 주 1) 20 day는 지난 20일 동안의 통계치를 의미함
- 2) 역사적 변동성(His.Vol)의 경우, 22일 기준임
- 3) 5~30 day는 현재로부터 5~30일간의 Vol을 의미함
- 4) 변동성 콘(Vol.Cone)의 기준은 현재 잔존일(T.T.M)
- 5) EST.Max/Min : 변동성을 지수 범위로 환산한 것임
- 6) TTM : 잔존만기, C.S : 왜도 계수(역TTM 대상)

그림 3. I.V-H.V 차이는 상한 도달. H.V 반등하면 I.V도 하락 제동



주: VIX는 ATM 기준 내재변동성
자료: KRX, KOSCO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Vol.Cone: 내재변동성은 25th 하회. 추가 하락 둔화될 것



주: 6개월 동안, 동일한 잔존 만기에서 관측된 변동성의 percentile
자료: KRX, KOSCO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풋 207.5 대량 신규매수, 콜 247.5 일부 신규매도. 행사가격 달라 collar 매도 유력

Check 3. 옵션 투자자별 동향: 외인, 2일 연속 D-OTM 풋 대량 신규매수

전일 외인은 풋 207.5p를 +4,525계약 순 매수했는데, 미결제가 +7,067계약 늘어 신규매수였다. 21일(풋 205.0p)에 이어 이를 연속으로 deep-OTM 풋 매수를 누적한 셈이다. 한편, 콜 247.5p는 -4,547계약 순 매도였는데, 미결제가 +1,529계약 늘어 신규매도가 포함되었다. 풋 순 매수와 콜 순 매도 규모가 비슷했지만 행사가격이 달랐기 때문에 합성선물의 혐의(?)는 없었다. 이러한 ‘콜라(collar) 매도’ 탓에 누적 포지션의 ‘+’ 델타는 급감했으며, ‘-’ 벡가는 더욱 늘었다.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지수는 하락, 변동성은 축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주체 별 지수 방향과 변동성 방향 전망 (단위: p)

구분	BEP	Max level		지수	변동성
		이익	손실		
외인	상한	260.0	++	255.0	↑
	하한	225.0	++	230.0	
개인	상한	235.0	++	0	↑
	하한	235.0	0	--	
투신	상한	247.5	0	--	↓
	하한	247.5	++	0	
증권	상한	260.0	255.0	--	↓
	하한	202.5	220.0	--	

주: 1) BEP 상한(하한)은 지수 상승(하락)시 손익이 전환되는 레벨
 2) Max level 상한(하한) 이익/손실은 지수 상승(하락)시 최대 수익 발생하는 지수 레벨, ‘++(--)’는 최대 손익이 무한대
 3) 지수/변동성의 화살표는 Greeks와 결합 포지션에 근거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각 투자자의 지수/변동성 방향 예측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주체 별 포지션 Greek's (단위: 백만원)

구분		Delta	Gamma	Theta	Vega
외인	누적	883.54	-26.84	53.79	-254.01
	당일	-920.40	-9.49	32.35	-89.90
개인	누적	604.18	-64.56	145.32	-611.62
	당일	-335.56	-14.33	37.50	-135.71
투신	누적	-586.06	-32.62	83.32	-309.07
	당일	-0.89	-0.37	0.88	-3.48
증권	누적	-160.57	33.77	-76.62	319.75
	당일	139.16	19.71	-47.97	186.65

주: 1) 행사가격별 Greeks는 대우증권 Q way TR[3216]의 최근월물 기준을 사용
 2) 누적 Greeks는 콜/풋 행사가격별 Greeks 총 합계로 (특정 행사가격의 누적 순매수 X 해당 행사가격의 당일 Greeks)를 사용함
 3) Gamma는 여타 Greeks와 절대 비교를 위해 1/2를 적용. S²를 적용하면 됨. 모든 Greeks는 백만원 단위, ΔS=1p, Δσ=1%p임
 자료: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외인, 콜 247.5 매도로 현금 확보해 풋 OTM 매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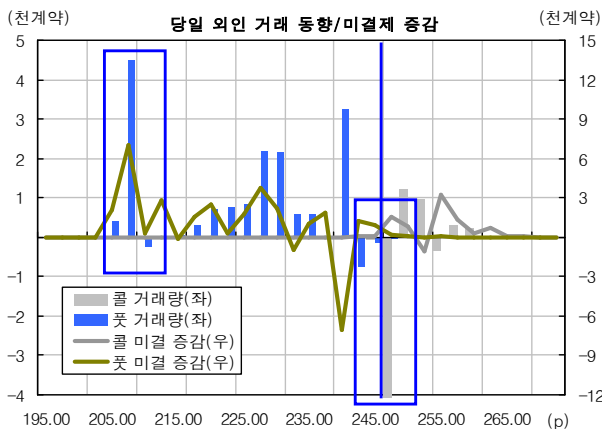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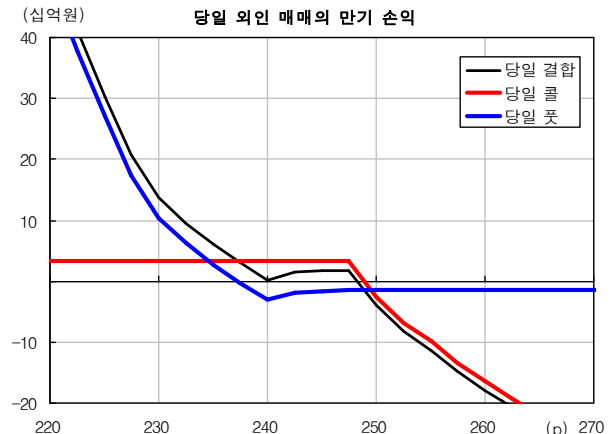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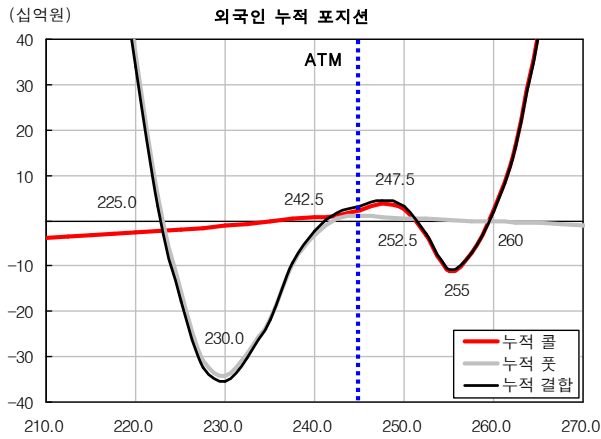
그림 6. 행사가격 달라 결합 포지션은 Collar 매도



주: 행사가격 별 순 매수는 당사 Qway 기준
 자료: KRX, KOSCO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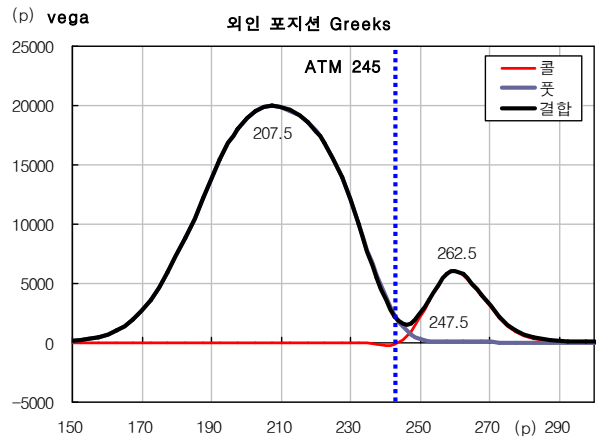
주: 전일 행사가격별 순 매수 누적의 만기 손익
 자료: KRX, KOSCO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누적 포지션은 여전히 ‘풋 백 SP > 콜 백 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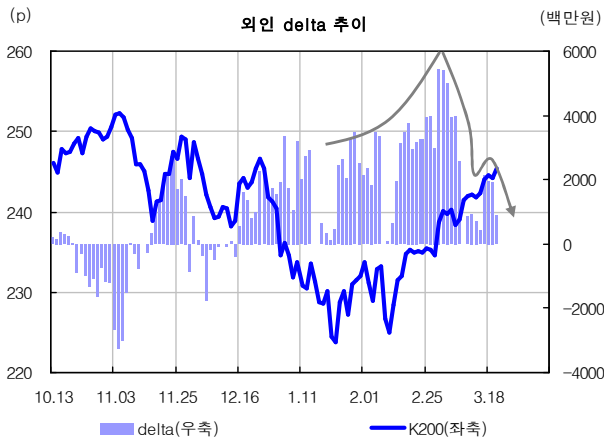
주: 행사가격 별 누적 순 매수를 지수 수준 별 만기 손익으로 표시한 것
 자료: KRX, KOSCO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포지션 베가의 저점은 247.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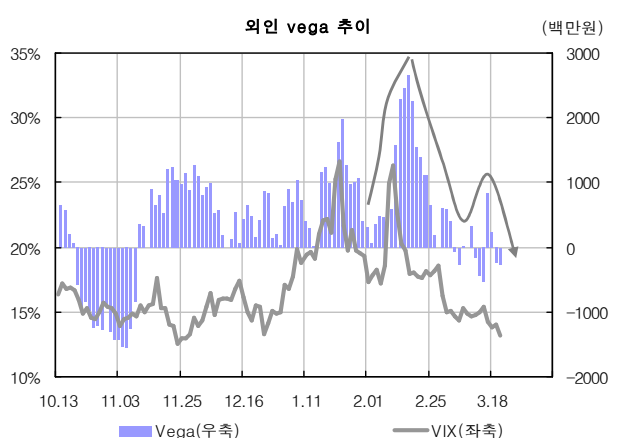
주: 행사가격 별 델타의 합계
 자료: KRX, KOSCO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포지션 델타는 계속 하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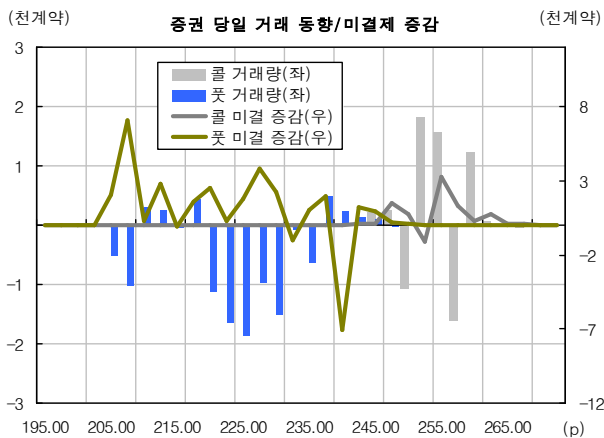
주: 포지션 델타의 추이
 자료: KRX, KOSCO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포지션 베가 역시 ‘-’ 쪽으로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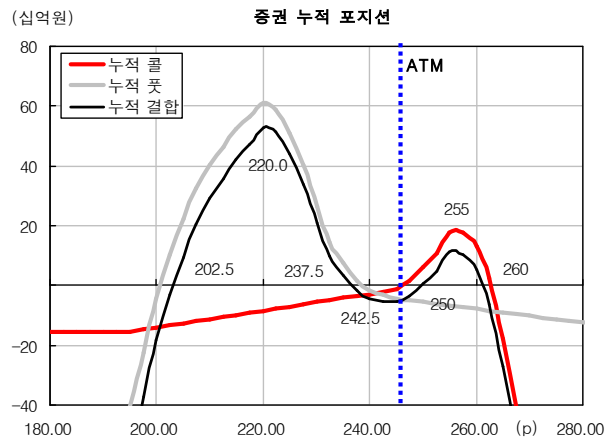
주: 포지션 베가의 추이
 자료: KRX, KOSCO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증권은 풋 매도 + 콜 레이스 SP



주: 행사가격 별 순 매수 누적은 Qway 참조
 자료: KRX, KOSCO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증권은 풋 레이스 SP > 콜 레이스 SP



주: 행사가격별 순 매수 누적을 지수 수준 별 만기 손익으로 표시한 것
 자료: KRX, KOSCO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Check 4. 선물옵션 통계

주가지수선물

	KOSPI200	1606	1609	1612	KSP16L9S
기 준 가 격	244.28	244.85	245.70	246.60	0.80
시 가	244.75	245.50	246.15	246.60	0.75
고 가	245.41	246.40	247.10	246.60	0.80
저 가	244.06	245.00	245.80	246.60	0.75
종 가	245.41	246.40	247.05	246.60	0.80
전 일 대 비	1.13	1.55	1.35	-	0.00
이 른 가 격	-	246.29	247.06	248.06	0.77
총 약 정 수 량 *	72,808	91,392	885	-	2
총 약 정 금 액 **	3,020,412	11,224,131	108,897	-	492
미 결 제 약 정	-	117799 (-706)	4361 (676)	2410 (10)	-
배 당 지 수 ***	1.63% (CD금리)	0.00	0.22	0.22	-
반 응 배 수		1.04	0.96	-	
장 중 평 균 베 이 시 스		0.945			
전 일 대 비		-0.017			

주: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변동폭/일중 현물가격변동폭, KSP16L9S : 6월물과 9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베이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일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선물

(단위: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국가
	매 수	57,968	22,946	9,798	193	632	94	412	234
	매 도	57,101	23,465	10,279	98	697	119	435	83
	비 중	62.3%	25.1%	10.9%	0.2%	0.7%	0.1%	0.5%	0.2%
순 매 수 누 적	전 일	867	-519	-481	95	-65	-25	-23	151
	누 적	-3,569	1,793	4,664	701	-5,301	68	1,304	241
매 매 편 향 강 도		0.75%	-1.12%	-2.40%	32.65%	-4.89%	-11.74%	-2.72%	47.63%

주: 누적은 지난 쿼드러플워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정보

	전일대비	등락을	거래량(천주)	거래대금(백만원)	외국인보유	TIGER200	KODEX200
TIGER200	100	0.40%	1,286	31,864	0.79%	NAV	24,919
KODEX200	125	0.50%	2,066	51,317	5.95%	(ETF-NAV)%	-0.42%
	TIGER200	KODEX200	합성현물	최근월물	합성선물	T/E	0.00%
증가/100	248.15	249.10	245.39	246.40	245.64	설정주수(천주)	1,250
eff.delta	0.88	1.11	1.34	1.37	1.33	환매주수(천주)	0
diff/basis	1.12%	1.50%	-0.01%	0.99	0.23	상장주수(천주)	81,350
							227,700

주 1 :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 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 X 100(%)

주가지수옵션

대표 내재변동성(%)	11.3%	콜평균(%)	10.4%	풋평균(%)	12.6%	역사적 (5일,%)	5	역사적 (20일,%)	8
월물 행사가격		1604					1605		
		250.0	247.5	245.0	242.5	240.0	247.5	245.0	242.5
Call	가격 (p)	1.02	1.90	3.16	4.80	6.70	3.68	5.02	6.66
	전일 대비 (p)	0.19	0.35	0.53	0.74	0.93	0.33	0.41	0.65
	내재변동성 (%)	10.40	10.80	11.20	11.80	12.40	11.90	12.20	12.90
	거래량 (계약수)	71,141	70,272	26,761	2,435	464	140	68	1
	미결제 (계약수)	26,206	19,482	14,484	6,747	3,962	637	359	140
Put	가격 (p)	5.35	3.75	2.52	1.65	1.05	5.25	4.21	3.26
	전일 대비 (p)	-1.37	-1.18	-0.97	-0.78	-0.60	-0.85	-0.90	-0.60
	내재변동성 (%)	10.40	10.90	11.30	11.90	12.50	12.00	12.70	13.10
	거래량 (계약수)	237	1,413	14,887	36,640	62,246	199	81	212
	미결제 (계약수)	907	2,206	8,581	11,213	17,453	361	1,112	372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단위:

Call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국가	
매수	195,714	105,784	64,519	0	12	25	6,836	0	
매도	197,864	109,463	62,117	0	32	38	3,361	0	
비중	52.7%	28.8%	17.0%	0.0%	0.0%	0.0%	1.4%	0.0%	
순매수 누적	전일 누적	-2,150 18,786	-3,679 2,021	2,402 -15,907	0 0	-20 -2,442	-13 -128	3,475 -2,310	0 -15
Put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국가	
매수	227,828	119,832	69,551	0	47	70	387	4,756	
매도	212,198	120,599	76,950	0	52	160	595	11,917	
비중	52.1%	28.5%	17.3%	0.0%	0.0%	0.0%	0.1%	2.0%	
순매수 누적	전일 누적	15,630 109,286	-767 -90,607	-7,399 -15,117	0 0	-5 795	-90 143	-208 -667	-7,161 -3,833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한 것임

주체

(단위:억원)

구분	합계	외인	기관 합계	증권	보험	투신/사모	은행	기타법인	연금/국가
당일	현물 전체	1,403	-945	-315	-183	-604	4	672	120
	개별 종목	116	219	73	-78	254	14	672	50
	차익 PR	-396	-171	-225	-78	0	-148	0	0
	비차익 PR	280	1,355	-1,066	-311	-105	-710	-10	0
	매매 비중	35.2%	83.0%	16.5%	3.8%	1.2%	7.8%	0.1%	0.1%
누적	현물 전체	13,671	-15,428	-2,003	-2,934	-10,745	-176	3,779	736
	개별 종목	-4,539	-2,463	281	-1,244	-3,389	-49	3,918	662
	차익 PR	685	450	235	479	85	-329	0	0
	비차익 PR	3,854	15,684	-11,651	-2,763	-1,775	-7,027	-127	-139

주: 현물 전체는 K200 기준

개별 종목 = 현물 전체 - 차익 PR - 비차익 PR

매매 비중 = 주체별 PR 매수+매도/전체 PR 매수+매도, 합계의 매매 비중은 현물 전체에서 PR의 매매 비중

누적은 선물 만기일 이후부터 당일까지 누적한 것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중요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